

“장애를 넘어 하나되는 참여와 포용의 시대 열자”...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병오년 새 설계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실현”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모두가 함께 즐기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실현을 위해 장애인체육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순위 6위 달성, 8개 기업 92명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운영,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개 메달 획득, 제2기 발전위원회 운영 및 후원금 조성, 장애인 복지 통합박람회 공동 개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회장은 이어 “올해도 공공·민간기업 장애인선수 채용 연계 확대, 2026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수 성적 달성, 20

28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 만전, 광주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 모집 및 운영 지속화, 자치구 중심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등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 선수 일자리 연계 사업을 진행, 8개 공공 민간기업에 92명의 장애인체육선수가 근무하고 있다.

한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장애인 채용의 사회적 가치와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 더 많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취업을 통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수관리 및 행정서

비스 질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2028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2028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한 수석부회장은 “21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인공지능(AI) 스마트 체전, 문화예술 융합 체전, 시민 참여형 체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전 등 4대 목표를 차질없이 준비해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 광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발전위원회는 매년 지역 내 개인·기업인 100명을 모집해

공공·민간기업 ‘맞손’...장애인선수 일자리 연계사업 확대 2028 장애인체전 준비 만전...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제공

운영하고 있다.

한 수석부회장은 “제1, 2기 발전위원회에서 후원금을 조성해 사각지대 선수 지원, 장학금 지급, 전국체전 후원, 전문체육 지도자 훈련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도 제3기 발전위원회를 운영해 민간 후원조직과 기부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치구 중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특색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체육사업 전개를 통해 현장 밀착형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7만 장애인들의 건강지킴이’라는 사명감으로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장애인들에게 단절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희망·감동주는 장애인체육 강화”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수에게는 최고의 동반자, 도민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도민과 함께 희망을 키우고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상임부회장은 “지난해는 전남장애인체육의 위상을 한층 높인 뜻깊은 한 해였다”며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대 원정 최고 성적인 종합 7위를 달성했고,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박 상임부회장은 “올해도 ‘선수에게는 최고의 동반자, 도민에게는 희망과 감동을 주

특성·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생활속 체육환경 정착 ‘참여·포용·상생’ 기치, 도민 공감 따뜻한 스포츠문화 확산

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라는 비전 아래 전남장애인 체육인 모두가 하나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와 포용이 보장되는 장애인체육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확립해 선수의 성장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22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저변 확대를 통해 장애인체육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체육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장애인 스포츠가 단순한 경기 영역을 넘어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또한 전남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체력 평가 및 맞춤형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박 상임부회장은 “올해도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스포츠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일선 시·군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장애 특성과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생활 속 체육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와 발전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결과”라며 “전남도장애인체육회의 핵심 가치인 ‘참여·포용·상생’의 정신을 토대로 지난해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모든 도민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따뜻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부회장은 마지막으로 “병오년 새해,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사회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도민에게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팀 분위기 쇄신, 투혼으로 플레이오프 도전”



“광주도시공사만의 탄탄한 팀워크로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하 광주도시공사)이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대장정에 돌입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경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년 연속 통합우승을 차지한 SK슈가글라이더즈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지난 시즌 부진했던 성적과 침체됐던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선수단 체질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시즌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리그 6위라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다르다.

국가대표 출신 센터백 이효진(전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최수지(LB), 함지선(PV), 강주빈(RB) 등 4명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고, 신인 드래프트로 유망주 윤별(RW), 박소망(LB), 최연아(LB)를 지명, 신·구 조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렸다.

오 감독은 “시즌을 대비해 다시 원점에서 하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H리그 대장정 돌입...내일 ‘절대 1강’ SK와 개막전



강도높은 팀 분위기 쇄신으로 새로운 팀으로 거듭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광주시체육회 제공〉

나하나 보완하고, 선수 개개인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력 강화와 전술 다양화를 겸한 동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팀이 새롭게 거듭난만큼 개막전은 반드시 승리하겠다. 비록 SK가 강팀이지만 스피드 있는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19-24일 경남에서 전지훈련을 실시, 실전 적응 훈련을 통해 세

롭게 합류한 선수들과의 팀워크 완성도를 높였고, 광주월드컵경기장 웨이트장에서 매일 체력 강화를 위한 구슬땀을 흘리며 시즌 준비를 마쳤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번 시즌 새로 구성된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의 첫 발걸음이 승리를 향한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수 개개인의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즌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 동계체전 참가 광주선수단 격려



사용하고 있어 훈련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부족한 훈련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훈련장 격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유망주 발굴 및 선수수급에 있

어 지속 가능한 육성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이 대견하고 고맙다”며 “광주 대표선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선전을 펼쳐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근대5종 국가대표 꿈나무들이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해남, 근대5종 전훈 메카 ‘우뚝’

스포츠인프라 최고...꿈나무, 상비군, 국가대표 동계훈련 구슬땀

근대5종 국가대표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전지훈련 메카’ 해남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전남근대5종연맹은 근대5종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단 22명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우슬경기장에서 동계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 합숙훈련에는 남자 선수 8명, 여자 선수 9명과 지도자 4명, 트레이너 1명 등 총 22명이 참가했다.

전문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체력 강화와 기초기술 점검, 종목별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꿈나무 동계합숙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13-24일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과 2월2-14일 국가대표 선수단 전지훈련을 차례로 해남에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남근대5종연맹과 해남군은 꿈나무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단계별 선수 육성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해남을 중심으로 한 전지훈련 인프라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반면 온화한 겨울 기후와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갖춘 해남은 매년 전국 각지 선수단이 찾는 전지훈련 최적지로,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전지훈련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

‘셔틀콕 여제’ 안세영, 말레이오픈 8강 안착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직전 경기의 아쉬움을 딛고 다시 본페도에 오르며 말레이시아오픈 8강에 진출했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30위 오쿠하라 노조미(일본)를 2-0(21-17 21-7)으로 37분 만에 완파했다.

안세영은 8강에서 세계 5위 한웨(중국)와 만날 가능성이 컸으나 한웨가 16강에서 가련해

세계 26위 리네 회이마르크 키에르스펠트(덴마크)와 4강 진출을 다룬다.

2024년과 2025년 말레이시아오픈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경우 대회 3연패 금자탑을 쌓게 된다.

이번 말레이시아오픈을 시작으로 13일 인도 오픈까지 출전을 확정된 안세영은 자신이 세운 대기록 경신을 목표로 본격적인 새 시즌 여정에 나섰다.

/연합뉴스

불모지에서 희망을 쫓아

광주시체육회가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에 출전하는 광주선수단의 훈련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사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5일 염주빙상장을 찾아 동계체전 사전경기에 참가하는 빙상 종목 선수 및 지도자 등 17명을 격려하고 선전을 응원했다.

이번 훈련장 방문 격려는 하계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광주에는 빙상장이 1곳뿐으로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선수들과 일반 이용객이 함께